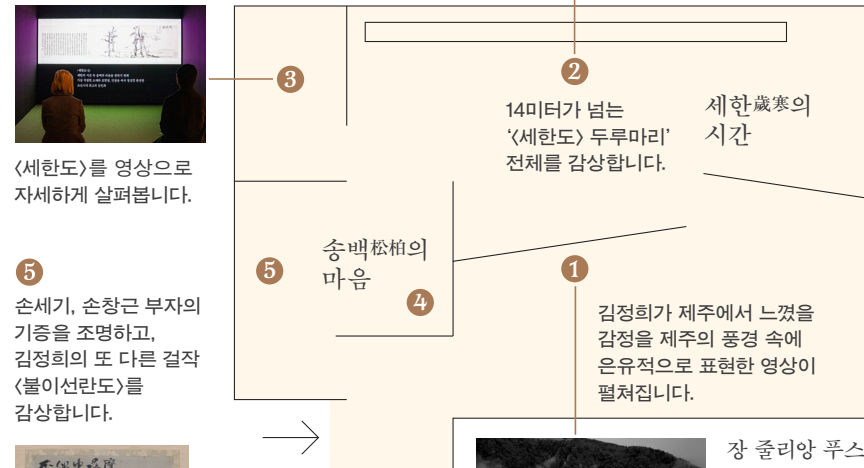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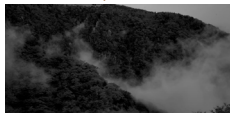


전시구성

Map of the Exhibition



김정희, <세한도>
조선 1844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20년 손창근 기증
국보



장 줄리앙 푸스
<세한의 시간>
2020년 제작
영상, 7분

4

김정희의 벗들을 소개하고
20세기 그의 학문과
예술을 이어간 후학들과
<세한도>의 전래과정을 알아봅니다.

허련, <김정희 초상>

조선 19세기 중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18년 손창근 기증



김정희, <불이선란도>
조선 19세기 중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18년 손창근 기증

* 이 전시는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세한歲寒, 한겨울에도 변치 않는 푸르름"의 순회전으로 일부 전시품이 교체되었습니다.

전시기간 2022. 4. 5.(화) ~ 5. 29.(일)
전시장소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09:00~18:00
관람료 무료

특별 강연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
일시 4. 23.(토) 14:00~16:00 | 강당 | 140명 | 사전예약
강사 유홍준(명지대학교 석좌교수)
※ 국립제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 접수

교육프로그램 [교사초청설명회] 새봄에 만나는 세한도
기간 4. 18.(월) 16:00~17:30 | 기획전시실 | 사전예약

[초등3~6학년/개인] 세한도 그림읽기
기간 4. 9.(토)~4. 30.(토) | 매주 토 10:00~12:00 | 교육실 | 사전예약

[초·중등/단체] 세한도 그림읽기
기간 4. 20.(수)~5. 25.(수) | 매주 수 | 40분 | 비대면(ZOOM) | 사전예약

※ 교육 프로그램 일정 및 진행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학예연구실 064-720-8105, 8176)
※ 사전예약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jeju.museum.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632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Tel 064.720.8000 | Fax 064.720.8050

Website jeju.museum.go.kr
Facebook @jejumuseum Instagram @jeju.museum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Sehando, Wintry Days

다시 만난
추사秋史와
제주

세
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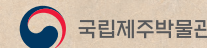
圖寒歲



2022. 4. 5.Tue. - 5. 29.Sun.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Jeju National Museum



전시를 열며
Introduction

19세기 전반 학문과 예술의 중심에 있었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는 1840년 제주로 유배를 옵니다. 이곳에서 그는 죄인의 신분인 자신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귀한 책을 보내며 위로해준 제자 이상적李尙迪(1804-1865)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세한도歲寒圖>(국보)를 그렸습니다. <세한도>는 추운 겨울에도 푸르른 송백松柏을 소재로, 시련 속에서도 신의를 굳게 지킨 변치 않는 마음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소중히 전해졌습니다. 2020년, 대를 이어 소장해 온 손창근孫昌根(1929년생) 선생의 숭고한 기증으로 <세한도>는 우리 모두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그 감동의 여운을 이어 178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세한도>를 선보이는 특별전 "세한도, 다시 만난 추사秋史와 제주"를 개최합니다. 오랜 여정을 거쳐 다시 제주에서 만나는 <세한도>는 긴 두루마리의 길이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im Jeonghui (1786-1856, pen name *Chusa*) was a central figure in the literary and art world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He was condemned to exile and sent to Jeju in 1840. Despite his disgraced status, the loyalty of Kim's disciple Yi Sangjeok (1804-1865) never wavered. Yi sent many precious books over the years to provide his teacher some measure of comfort during his ordeal. Kim painted *Sehando*(Wintry Days) as a show of gratitude for this unwavering devotion, comparing it to an evergreen pine tree that retains its color through the harsh winter. *Sehando* passed through several hands over the years. Thanks to its careful preservation and the generous donation of Sohn Chang Kun (b. 1929) in 2020, *Sehando* now belongs to all Korean peopl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eld an exhibition of the painting to celebrate this gift, and we are proud to put it on display in Jeju for the first time since it was created here 178 years ago. The length of the *Sehando* scroll is matched by its storied history. We invite you to delve into the saga of its production, long journey and return.

歲寒圖

蒲船是賞

阮堂



去年以晚學大雲二書寄來今年又以
蒲畔文編寄來此皆非世之常有難之
千万里之遠積有年而得之非一時之
事也且世之酒之惟權利之是趨為之
費心費力如此而不以歸之權利乃歸
之海外蕉萃枯槁之人如世之趨權利
者太史公云以權利合者權利盡而交
疏君亦世之酒之中一人其有超然自
拔於酒之權利之外不以權利視我耶
太史公之言非耶孔子曰歲寒然後知
松柏之後凋松柏是母四時而不凋者
歲寒以前一松柏也歲寒以後一松柏
也聖人特稱之於歲寒之後今君之於
我由前而無加焉由後而無損焉然由
前之君無可稱由後之君亦可見稱於
聖人也耶聖人之特稱非徒為後凋之
貞操勁節而已亦有所感發於歲寒之
時者也嗚呼西京淳厚之世以淑鄭之
賢賓客與之盛衰如下邳樹門迫切之
極矣悲夫阮堂老人書



QR코드를 찍으시면 '세한도' 두루마리의
모든 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희金正喜(1786~1856), <세한도歲寒圖>, 조선 1844년, 종이에 먹, 23.9×108.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20년 손창근 기증, 국보